

“한국은 5G 메카” 글로벌 거물 몰려온다

세계최초 상용화 효과
세일스포스 창업자 이어
도이치텔 CEO 6월 방한
애플 팀 쿡·MS 나델라
하반기 방문 가능성도

애플 스티브 잡스,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의 뒤를 잇는 혁신기업가의 대행사로 꼽히는 미국 클라우드기업 세일스포스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마크 베니오프가 지난 11일 극비에 한국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출장길이던 베니오프 CEO는 이날 당일치기로 KT를 방문했다. 황창규 KT 회장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5세대(G) 통신을 상용화한 한국의 기술에 대해 설명을 듣고, KT 데이터센터를 둘러본 다음 바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황 회장이 베니오프 CEO를 만나 한국의 5G를 소개한 게 계기가 됐다”고 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를 구축한 한국에서 5G 생태계를 확인하고, 미래 먹거리를 구상하고 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베니오프는 1999년 세일스포스를 설립해 창업 13년 만에 업계 1위 SAP를 제치고 글로벌 최고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으로 성장시킨 IT업계 신화적인 존재다. 세일스포스는 지난해 매출 132억달러(약 15조1100억원)를 기록하는 등 매년 20% 넘게 성장하고 있고, 지난 7년간 연속으로 포브스가 선정한 혁신기업 1위에 올랐다.

IT업계 관계자는 “세일스포스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에게 고객관리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라며 “5G 기술이 확산되면 클라우드 생태계도 대변혁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긴급하게 한국을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시된 5G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글로벌 IT 리더들이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 글로벌 IT 기

업 및 통신사 수장들은 예정에도 없던 ‘5G 미팅’을 국내 이통사에 긴급히 요청하는 가 하면, 자사 임원진 수십 명을 꾸려 ‘5G 견학’을 자처하고 있다.

오는 6월에는 유럽 통신사 도이치텔레콤(독일)이 팀 회트게스 CEO를 비롯해 임원 50명과 함께 ‘5G 체험단’을 꾸려 SK텔레콤을 방문한다. 이들은 무려 일주일간 서울에 머물며 5G 네트워크, 서비스, 스타트업까지 5G 생태계 전반을 공부하고 갈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구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도 5G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남과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A2면에 계속
이선화·김유선 기자

성장전망 낮아지는 한국 경기 회복 뚜렷한 美·中

美 1분기 저성장 전망 뒤엎고
2%대 ‘서프라이즈’ 예상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진단되면서 이들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가 속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는 등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이들 국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 효과가 가시화하는 데 따른 현상이다. 반면 G2 국가를 주요 수출 시장으로 삼고 있는 한국은 성장률 전망치가 오히려 하향 조정되는 등 ‘경기 회복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무디스 애널리틱스와 공동으로 경제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미국의 1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2%대 중반으로 크게 높아졌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종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 1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0~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거론됐던 것을 고려하면 낙관적인 시각이 확산된 것이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미국 1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2.4%로 조사됐다. CNBC는 “불과 얼마 전까지 2%를 하회했던 1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서서히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애플과 엔비디아는 1분기 성장률 전망치로 2.8%를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월스트리트저널(WJS)은 마이클 페롤리 JP모건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2.9%로 끌어올린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지표 개선, 대중(對中) 무역수지 감소 등 최근 긍정적인 경제지표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전망을 한층 낙관적으로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경우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6.4%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6.3%)보다 양호하게 나오자 일부 투자은행들은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거둬다며 중국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씨티는 중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2%에서 6.6%로 올렸다.

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3개월 전 전망보다 0.1%포인트, 1년 전보다는 0.4%포인트 하락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1분기 투자와 수출 흐름을 점검해 본 결과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파악돼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뉴욕/장용승·베이징/김대기 특파원
서울 이윤섭 기자

<헌법재판관>

이미션 임명 강행 한국당 “장외투쟁”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션·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 재판관 사퇴를 강력히 요구해온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임명함에 따라 향후 정국이 급격하게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과 최저임금, 탄력근로 관련 법안 등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쟁점 법안들이 국회 협조를 받지 못해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 형식으로 두 재판관 임명안을 제가했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 이번 임명안 제가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18일 자정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 재판관의 사퇴를 요구했던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서기도 하면서 향후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 있는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문재인정권 성장으로 채워져 마음에 안 드는 법을 현재로 넘겨서 무더기 위한 결정을 하려고 할 것”이라며 “참여정부 당시 386 운동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젠 그 수고를 할 필요 없이 이런 결정 하나로 의회 패성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A6면에 계속
고재만·박용범·송광섭 기자



전자결재로 임명된 2인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미션(오른쪽), 문형배 신임 헌법재판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 관련기사 A6면 <이종우 기자>

부탄 국왕 “한국 영화산업 배워오라”

한국영화 100년 ①
년2조3천억 세계6위로 성장
亞太국가들, K무비 학습 열풍

최근 우리나라 영화인 10여 명이 남아시아의 작은 나라 부탄 현지에서 2주간 영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돌아왔다. 왕추크 부탄 국왕(31)으로부터 “한국 영화를 벤치마킹하라”는 특명을 받은 부탄 정부가 우리 측에 연수 과정을 열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국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 관

계자 10여 명으로 연수단을 꾸렸다. 현지 시찰을 다녀온 한진섭 해외문화홍보원(KOICS) 대표는 19일 “부탄 영화진흥위원회 설립 추진위원 10명과 현지 PD 20명을 대상으로 교육했다. 우선적으로 올해 안에 부탄영화진흥위원회를 세우도록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A5면 부탄이 한국으로부터 영화를 배우기로 결심한 것은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공부한 ‘신세대’ 왕추크 국왕이 자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바깥으로 눈길을 돌리다 급성장한 한국 영화산업의 잠재력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6위 영화 강국으로 부상했

다. 6년 연속으로 연간 관객 수 2억명을 웃돌며 연 2조3764억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8년 연속으로 영화시장에서 국내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 서기도 했다. 한국 영화 100년을 맞은 2019년, 글로벌 직배영화사들의 점령지였던 한국이 지구촌 제3세계 국가들이 앞 다퉈 배우 가는 영화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이다. 한국 기업 CGV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다면상영관 스크린X는 북미와 유럽권을 넘어 전 세계 18개국에 팔려 나갔고, 오감 체험관 4DX는 오대양 63개국에서 세계 관객을 맞이하고 있다. 김시군 기자

태양광 과속...재생에너지 35%로

정부 2040년 에너지기본계획

정부가 ‘과속’ 논란에도 불구하고 2040년까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2040년까지 수요 관리를 통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2017년 수준으로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하지만 분산형 전원과 수요감축요청(DR) 확대 등을 통해 수요 관리에 나서겠다고 폐쇄하겠다는 탈석탄 정책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임성현 기자

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3차 계획은 2019~2040년 정책 방향을 담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외에 원전을 포함한 발전원별 비중을 밝히지 않았지만,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하지 않겠다고 탈원전 입장을 고수했다. 또 신규 석탄발전소를 금지하고 경제성 없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폐쇄하겠다는 탈석탄 정책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 이어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임성현 기자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했다.

> 관련기사 A10면, 3월 19일자 A1·14면 보도 정부 로드맵은 2017년 기준 7.6%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로 높이고, 또 다시 2040년에 최대 35%까지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2013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25년 7.5%, 2035년 11%를 제시한 것에 비하면 대폭 상승한 목표치다. 예



사이버범죄
끝까지 캔다
박윤성 경위

“갤러리아 백화점! 아쿠아리움! 메리어트 호텔! ... 광고컨벤션꿈에그린 단지내 상가 인기”

한화 광고컨벤션 꿈에그린

경기융합타운 경기도청 완공 호재
아파트 입주 박차, 상가 오름세
오피스텔 수요 확보, 투자까지 높아

한국은행 시중금리가 여전히 1%대를 유지하면서 시중 부동산금이 상가로 몰리고 있다. 인기지역에서 분양하는 상가를 중심으로 조기매각이 잇따르고 목 좋은 곳은 적잖은 웃돈까지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업용부동산(중대형 상가 기준) 투자수익률은 연 6.91%로 나타났다. 2017년 6.71%보다 상승했다. 연 2% 수준인 전기예금과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등 금융 상품 투자 수익률보다 3배 이상 높다. 이렇다 보니 퇴직을 앞둔 수요자 등의 목돈이 상가로 몰리고 있다.

상가 수익률 전기예금 대비 3배 높아
광고신도시는 지난 2005년 1월 개통돼 유동인구도 부쩍 늘었다. 또한 경기융합타운과 광고법조타운이 완공을 앞두고 있어 광고신도시의 가치 상승도 기대된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8.27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광고신도시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향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반증이다.

이처럼 광고신도시가 조성완료에 가까워지면서 상가 분양시장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신도시 조성은 완성이면 인프라가 좋아지고, 인구 유입속도도 빨라져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광고신도시 복합개발단지 지역 랜드마크 기대
신분당선 광고중앙역 걸어서 이용
호수공원 바로 옆, 날들이객 유치 용이

가 완성단계에 이르면서 생활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조성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이에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이 잘되면서 입주준비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광고신도시에서 강남까지 연결되는 신분당선이 2016년 1월 개통돼 유동인구도 부쩍 늘었다. 또한 경기융합타운과 광고법조타운이 완공을 앞두고 있어 광고신도시의 가치 상승도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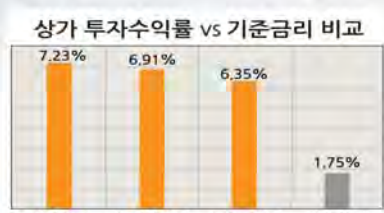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8.27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광고신도시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향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반증이다.

한화건설의 ‘광고컨벤션 꿈에그린 상업시설’은 광고 복합개발단지사업의 일환으로, 수원컨벤션센터, 갤러리아 백화점, 아쿠아리움, 호텔이 함께 들어선다. 때문에 상업시설 위에 조성된 오피스텔 입주세대 및 아쿠아리움의 고정수요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갤러리아 백화점과 호텔 등이 이용하는 소비수요까지 끌어들이 수 있어 광고신도시 핵심 상권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고의 입지 자랑, 유동인구 풍부
특히 수원컨벤션센터는 경기 남부를 대표할 융복합MICE산업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갤러리아 백화점은 연면적만 13만㎡의 대규모로, 경기 남부지역 대표 프리미엄 백화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쿠아리움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조성된 아쿠아플라넷63의 2배 규모로 들어서며, 호텔 또한 288실 규모 예정, 유원호텔랜드인 메리어트가 위

▲ 광고신도시 랜드마크 자리매김 할 복합개발단지 ‘광고컨벤션 꿈에그린 상업시설’ 투시장

<광고>



보고 있다. 실제로 상가시장을 진단하는 지표들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설사들도 분양시장에 열광 상가를 쏟아내고 있다.

문의 : 1877-1711